

해양도시 여수의 문학적 표상과 공간의 로컬리티*

전 영 의**

요약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여수의 발전과정 안에서 여수가 어떻게 문
학적으로 표상되고 공간의 로컬리티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는 목적에
서 출발하였다.

『태백산맥』, 『여수역』, 『절망 뒤에 오는 것』, 『여수의 눈물』, 『하산장(下山場)』,
『1948년 여수의 블루스』, 『여수의 사랑』 등을 텍스트로 하여 여수라는 공간에 관
한 생물학적 사실들, 공간과 장소의 관계, 이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경험의 방식
들을 살펴보았다. 실제 여수 시민들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 텍스트 인물들의 경험
이나 의식 속에서 '여수가 자신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 경관 속에서 표현되는 장
소와 무장소(장소상실)의 독특하고 본질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일제강점
기 일본 주도의 도시화정책에 의해 개발된 항구도시 여수는 1949년 여순사건이라
는 역사적 비극을 거쳐 1970년대 산업화 이후 국가산업단지로, 최근에는 국제엑스
포를 개최하면서 관광산업단지로 발전하였다. 진정하면서도 의식적인 장소감은 인
간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반영하는 장소를 창출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비롯된다. 일
제강점기 징용을 갔다 귀국한 사람들, 여순사건과 한국 전쟁 후 오갈 데 없어진 사
람들이 모였던 귀환정, 마래산 절벽 아래 시체웅덩이, 전쟁 후 새로운 서울의 이미
지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기차간에 실려 보내진 거지들의 종착역이었던 여수역, 국
동 구봉산자락에 자연스레 형성된 무연고 공동묘지에는 국가방위산업체 공장이 들
어서고, 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전부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그 터를 알 수 있는 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5661)

** 전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그마한 비석. 대규모 공장단지, KTX역, 호텔과 공원이 들어서있을 뿐이다. 의식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진정한 여수의 장소감은 사라진 채 오히려 여수 밤바다의 네온 사인과 호텔의 화려한 불빛, '여수밤바다' 노랫소리만 흘러나온다. 현대 경관의 맥락 속에 심오한 상징이나 의미가 아닌 우리 자신과는 단절된 합리성과 부조리, 무장소성만 드러난다. 강요되고 표준화된 가치로 이루어진 대중문화 안에서 근 100년의 시간동안 변화한 여수의 로컬리티는 규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물리적, 사회적, 미학적, 정신적 문화를 '인간과 공간, 장소'라는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수에 대한 진정하고도 무의식적인 장소감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여수'의 로컬리티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여순사건, 장소, 공간, 로컬리티, 여수, 장소상실, 『태백산맥』, 『여수역』, 『절망 뒤에 오는 것』, 『여수의 눈물』, 「하산장(下山場)」, 「1948년 여수의 블루스」, 『여수의 사랑』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일제 강점기 여수의 도시화 과정
3. 여순항쟁과 도시의 기억
4. 살아있는 공간 여수, 매 순간 깨어있기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여수의 발전과정 안에서 여수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상되고 공간의 로컬리티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부군면 통폐합과 함께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여수는 1923년 여수항 개항과 여수면의 승격, 1930년 광주-여수 간 철

도 개통후 여수-시모노세키 간 ‘관려연락선’을 취항하면서 공업화되어갔다. 여수 기업들이 일제의 자문기구 참여를 통해 식민권력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었고 여수는 점차 근대화된 도시로 발전하였다. 해방 후 18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남로당 계열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군인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 여수 순천 민간인들 다수가 희생되고 국가폭력에 항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여순항쟁’이다. 공식적인 집계로는 반란군에 의해 경찰 74명을 포함 150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하고, 정부 측 진압 군경에 의해 2500여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다고 나와 있다.¹⁾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수립 2개월 만에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철권통치를 하게 된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여수는 국가산업단지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 유학생²⁾들 상당수가 여수에 거주를 하면서 생계 및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여수는 크게 일제강점기, 해방 후 여순항쟁, 현대 산업화 등으로 그 시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제강점기 여수에 대한 연구로는 여수의 일제 군사기지³⁾, 여수 항일운동사⁴⁾ 등의 단행본과 근대사⁵⁾, 도시계획⁶⁾, 민속학⁷⁾ 분야에서 15편

-
- 1)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인의 죽음은 7600건이며 여순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은 1102건이었다. 허상수,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지역사회연구』 vol.2, 한국학술정보, 2012 참고할 것.
 - 2) 현재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는 매학기 120여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1년간 한국어 집중교육을 받기위해 입학하고 있다.
 - 3) 주철희,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여수에 남겨진 일제 군사기지 탐사보고』, 흐름, 2015.
 - 4) 여수항일운동사 편찬위원회, 『여수항일운동사』, 전라남도 여수시, 2006.
 - 5) 박경목,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女(여)수감자 현황과 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68집, 2014.
 - 6) 우승환, 「일제강점기 여수의 도시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집, 2011.
 - 7) 이윤선, 「여수 영당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민속경관 전략」, 남도민속연구 14집, 2007.

정도의 학술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여순항쟁에 관한 연구로는 근대사⁸⁾, 정치학⁹⁾, 사회학¹⁰⁾, 역사학¹¹⁾, 문학¹²⁾ 분야에서 103편의 논문과 단행 309개¹³⁾의 학술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최근 산업화된 여수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는 (사) 여수지역사회 연구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간한 『지역사회연구』¹⁴⁾를 살펴보면 여수의 문화, 역사, 지방자치, 환경, 언론, 도서, 해양, 평화, 인권, 관광 등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만¹⁵⁾ 이러한 산업화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소외감, 장소상실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순천도호부의 군사기지였던 여수가 1895년 전라좌수영이 폐쇄될 때까지 독립된 행정지위를 갖지 못하다가, 성벽이 철거되고 철도가 개통되는 등 1897년 순천군에서 독립 후 일제강점기 근대화된 도시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어민이주정책, 철도개통 등 일본 주도의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환승교통도시로 자리 잡았던 여수가 ‘여순사건’으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로컬리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주지할 수

-
- 8) 김아람, 「여순사건 이후 지역의 피해와 재정착의 정치성」, 한국근현대사 연구 84집, 2018.
- 9) 김무용, 「제헌국회의 계엄령 헌법화와 계엄법안의 차별화」, 한국사학보 49집, 2012.
- 10) 정호기, 「전쟁 기억 매개체와 담론의 변화」, 사회와 역사 68집, 2005.
- 11) 주철희, 「여순사건과 지역의 기억」, 역사학연구 56집, 2014.
- 12) 전홍남, 김동윤, 「여순사건과 4.3사건 관련 소설의 담론화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0집, 2003.
- 필자도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태백산맥』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 출고, 「『태백산맥』의 탈식민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76집, 2011.
- _____,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문학생산론-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7집, 2012.
- _____,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나타난 문학의 정치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집, 2012.
- _____, 「조정래 『태백산맥』의 서사담론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3)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 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선인, 2009.
- 14)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사회연구』, vol 1-3, 한국학술정보 출판사, 2000-2013.
- 15)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5년 6월 1일 출범하여 올해 24년째를 맞았다. 지역의 역사, 사회조사, 노동과 경제 분석을 주요 연구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로 활동하고 있다.

있는 사실이다.

‘여수’를 대상으로 출간한 소설들은 주로 ‘여순사건’에 관한 것들이며,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여수’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의미, 문학적으로 표상된 여수의 로컬리티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문지리적 관점과 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여수를 연구하는 융복합적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연구를 꾸준히 해 오면서 문학 텍스트를 통해 ‘해양 도시 여수의 로컬리티에 관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점들은 본 연구를 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수는 1800년대 말부터 1940년 일제강점기가 끝날 무렵까지 향교와 서당을 중심으로 한문학, 구비문학 등이 이어져 왔다. 본격적인 근대문학은 1940년 이후 출생자들이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이후 문단에 등단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텍스트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여순사건, 그리고 현재까지 여수의 로컬리티에 관한 연구를 해볼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여순항쟁, 현재 여수의 기억된 장소와 재현된 공간 안에서 개개인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상한 총 16권의 문학텍스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정래의 『태백산맥』¹⁷⁾, 양영제의 『여수역』¹⁸⁾,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¹⁹⁾, 백시중, 『여수의 눈물』²⁰⁾ 강중홍, 「하산장(下

16) 김은진, 「여수 지역 근대문학의 형성배경과 전개양상」, 남도문화연구 제10권,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4.

17) 조정래, 『태백산맥』 1-10권, 한길사, 1983-1989.

18) 양영제, 『여수역』, 바른북스, 2017.

19) 전병순, 『절망 뒤에 오는 것』, 국제문화사, 1963. 1961년 『한국일보』가 모집한 장편소설 현상 모집에 입선된 작품으로, 1962년 3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된 뒤 1963년에 국제문화사(國際文化社)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고 1962년 여류문학상을 수상하였다.

山場)》²¹⁾, 김용필, 「1948년 여수의 블루스」²²⁾에서는 정통성을 상실한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비극적 양상과 폭력에 대한 도시의 기억이 나타난다. 양영제의 『여수역』이나 백시중의 『여수의 눈물』은 일제강점기 여수의 모습까지 찾아볼 수 있다. 『여수역』은 실제 여순사건을 겪었던 여수 시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엮은 르포 형식 소설이며, 『여수의 눈물』, 「하산장(下山場)」, 「1948년 여수의 블루스」은 여순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소설화하였기 때문에 사실의 기록은 아니지만 사실이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재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수역, 학교와 운동장, 귀환정, 번영상회 등은 일제강점기와 다른 여수의 변화된 로컬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다. 한강의 『여수의 사랑』²³⁾에서는 산업화되고 발전해가는 여수에서 장소를 상실한 개개인들이 나타난다. 지울 수 없는 운명적 슬픔을 가진 이들은 삶의 비애를 느끼며 세계를 비극적으로 전망한다. 떠나고, 버리고, 방황하고, 추락하면서 죽음 언저리를 맴도는 이들은 장소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존재의 ‘살아있음’을 자각한다. 『여수의 사랑』은 여수에 대한 장소감, 장소애와 장소상실을 동시에 겪고 있는 이들에게 매순간 ‘깨어 있기’란 얼마나 어려운 수도의 길인가를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여수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상되는지, 공간의 로컬리티는 무엇인지에 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했던 여순사건의 기억을 2021년에 와서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과거를 품은 도시 여수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여수의 공간과 장소, 건축물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

20) 백시중, 『여수의 눈물』, 문예바다, 2020.

21) 강종홍, 「하산장(下山場)」, 남강문학 12호, 남강문학협회, 2020.

22) 김용필, 「1948년 여수의 블루스」, 여수인터넷뉴스, 2008.

23) 한강, 『여수의 사랑』, 문학파지성, 2012.

건들을 소재로 한 근대 여수 문학²⁴⁾을 텍스트로 하여 ‘해양도시 여수의 문학적 표상과 공간의 로컬리티’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일제 강점기 여수의 도시화 과정

장소에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situatedness)의 근본적 복잡성, 불확정성, 의문성에 주목하는 것이다.²⁵⁾ 인간은 희망과 꿈, 필요와 집착에 의해 사고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변화된 장소에서 우리는 감수성을 주고받으며 장소와 관계를 맺고 장소에 즉 토포필리아(topophilia)를 형성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땅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애보리진²⁶⁾의 말처럼 장소는 우리의 사고활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삶은 장소와 결합되어 있어 그 안에서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며 사고를 형성한다. 어떤 장소에서 길러지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특정한 정체성이 형성되기에 장소와 인간의 정체성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삶을 형성했던 장소들을 찾아감으로써 지나온 삶과 시간을 파악한다. 다양한 장소들을 환기하고 탐색하면서 사람과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때 실제적 장소는 실제적 공간이 된다. 외적 장소가 내부로 들어오면서 내적 공간이 되고, 내적 공간은 다시 외면화되면서 장소와 공간은 서로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런 지점들을 살펴 볼 때 인간의 정체성과 연결된 장소 안에서 공간은 생산된다.²⁷⁾

24) 여기서 여수 문학이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여수출신의 작가들이 여수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소재를 가지고 쓴 문학작품을 의미한다. 둘째, 여수출신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라도와 마찬가지로 여수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소재를 가지고 쓴 문학작품을 말한다. 본 연구계획서에서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25) 제프 말파스 지음, 김지혜 옮김,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6면.

26) 위의 책, 15면.

일본식 건물인 여수역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완공된 목조건물이었다. 일제는 전라선이 완전 개통되고 중일전쟁이 시작되던 1937년보다 훨씬 이전인 1920년대부터 이미 여수와 순천 사이에 선로를 먼저 놓고 있었다. 만주와 몽골까지 침략 지배하려는 일제는 군수물자 육로수송을 위해 기차길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수는 일본 시모노세키와 가까워 군수물자를 실어오기 유리하며, 호남평야에서 끌어 모은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여수역』, 36면)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등을 도발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요충지로 사용했다. 이때 여수는 전라동부 지역의 경제적·군사적 주요한 항구도시이자 전쟁과 수탈을 위한 전진기지였다. 광여선 철도를 개통하고 여수항을 개발하여 여수와 시모노세키 간의 정기연락선을 취항했다. 일본인들은 이곳을 통해 여수에 정착하였으며 곡창지대인 호남의 쌀과 면화는 수출되었다. 조선의 소년과 소녀, 청년들은 정신근로대, 징용, 징병, 일본군 성노예와 같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여수항을 거쳐 참전지역으로 나갔다.²⁸⁾ 일제강점기 건설된 여수역, 광여선 철도, 마래터널, 여수신항 등은 여수의 도시화과정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다. 현재 전라선이라 부르는 이 철도는 1913년 전북철도주식회사가 철도 부설면허를 받아 1914년 2월 자본금 30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60만원으로 증자해 본사를 전주에 두고 1914년 5월 토목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에 준공된 것이다. 1914년 11월 7일 첫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2018년 8월 30일 상행열차를 끝으로 종료되었다.²⁹⁾ 여수시 덕충동에 위치한 마래터널은 제 1터널과 2터널로 나뉘

27) 위의 책, 16-18면 참고할 것.

28) 이에 관해서는 주철희,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 흐름, 2015에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29) 1914년 11월 17일 이라-전주 구간이 여객 운송을 개시하고 화물 등 일반 운송업무는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 1927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 90만원에 매수해 경전북부선으로 개칭 후 운영하였다.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간이 폐지되거나 새로 개설되고 2011년 KTX운

다. 마래 제 1터널은 1926년 일제가 군량미 창고로 쓰기위해 설계했지만 현재는 폐쇄되어 있다. 같은 시기 만들어진 마래 제 2터널은 군사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여수 엑스포 방향에서 만성리 해수욕장 방향의 차량통행을 위해 최근까지 사용되었고 2021년 현재는 통행이 금지된 상태이다.³⁰⁾

여수역 옆 바닷가 개활지는 일제가 중국인 꾸리들과 조선인 노무자들을 수용할 막사를 지었던 곳이다. 긴 장방형 수용소는 군대 막사처럼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판자를 대어 창고처럼 만들었다. 가축 막사 같은 곳이 귀환정 판자촌의 원래 모습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선이 일제에서 해방되자 여수역에는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라갔다. 일제징용을 가던 사람들도 귀국선을 타고 여수로 귀환했다. 몽양 여운형이 중심이 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역자치조직인 여수인민위원회가 귀환동포 전체민 구호소로 천막을 치고 구호활동을 했던 장소가 귀환정이었다. 여수인민위원회는 이들을 위해 수제비를 끓여 배급하고, 일본군 부대에서 모포를 가져와 귀환정에 자리를 마련했다. 해방 후 갈 곳이 없어 놀러왔던 동포들, 이후 피바다가 된 여수에서 터를 잃어버린 사람들, 한국 전쟁 후 피난 내려 온 사람들이 하나 둘 놀러왔어 만들어진 판잣집이 바로 귀환정이었다.³¹⁾

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고초등학교를 향해 질러대는 노래 후렴구에

행 이후 현재까지 운행 중이었지만 최근 2018년 8월 30일 상행열차를 끝으로 종료되었다.(필자 주)

30) 조선인 건설 노동자들이 쇠파지와 정을 이용하여 직접 말굽형태의 굴을 팠다. 길이는 640m이고 높이는 4.3m로 100~110m 간격으로 5곳의 대기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마래터널은 천장과 벽이 마감 되지 않아 울퉁불퉁하다. 최근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새로운 터널이 뚫려서 여수 마래 제2터널을 지방기념물로 지정하고 박물관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수시에서도 여수 마래 제2터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 12월 31일 여수 마래 제2터널을 등록문화재 제116호로 지정하였다.(필자 주)

31) 앞의 책, 『여수역』, 37-38면.

불인 짜잔하다는 말은 더럽고 추하다는 여수사투리였다. (중략)

“떡떡굴 자들 말여”

“홍양숙이도 떡떡굴에 사나?”

“그래 니가 떡떡굴에 사는줄 안당께. 저것들 땡시 우리가 동교 아그들 한테 짜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훈주는 반 아이 중 서너 명에게 손가락 짚을 했다. 귀환정 판자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귀환정에 사는 아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훈주가 다니는 종고초등학교가 짜잔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 화가 났던 것이다. (중략) 그래서 그런지 귀환정에 살고 있는 아이 중에는 학교가 끝나면 길 건너 기차길을 넘어 귀환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다른 곳에 사는 것처럼 여수역을 돌아서 가는 아이도 있었다. (중략) 귀환정 사람의 죽음이 여수에 알려질 일도 아니거니와 알려진다고 해도 소문날 일도 아니었다. 여수는 죽음이 산재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 같은 곳이라 (중략) 여수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뒤섞여 있는 것 같아 죽음에 대한 만연된 정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여수역』, 27-29면)

귀환정에 사는 홍양숙의 아버지, 홍의철은 후쿠³²⁾의 쇠고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고 며칠 뒤 여수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관심이 없다. 여수 안에서는 귀환정을 경계로 안과 밖의 사람들이 하나의 요소로 환원되지 않았다. 그것은 홍양숙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일제 강점기 여수를 구성한 많은 외지인들 속에서 홍의철은 삼대 이상 여수에 터를 잡고 살아온 여수토박이였다. 그러나 외지에서 몰려와 경제권을 장악한 일본인들, 친일지주·상인들이 주가 되면서 정작 본인은 타자화된다. 경계의 안과 밖에서 두 객체는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32) 후쿠 본인은 한국전쟁에서 참여하여 팔을 잃은 상의용사라고 말하지만 확실치 않다. 이복사투리를 강하게 쓰고 김일성 및 북한체제, 빨치산에 대한 원망이 크다. 서북에서 내려온 청년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술 먹고 행패부리는 탓에 여수 지역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이다. (필자 주)

대립적이고 파편적이게 된다. 그러나 공간과 장소는 시간과 범위 안에서 총체성과 연속성을 형성한다.

여수의 '고뢰농장'(다카세 농장)도 일제강점기 여수의 도시화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이다. 1911년 일본 사가현에서 건너온 지주 오호쓰가 지사부로는 해방 후 고향 사가현으로 돌아갈 때까지 '고뢰농장'에서 부를 축적했다. 이곳은 300만평의 밭, 1500평의 건물, 244.8만평의 간척지, 항만매립지 10만평 등을 소유한 여수 최대의 부동산 회사였다. 대규모의 농토, 토지, 가옥을 소유하고 3000여명의 조선인들을 고뢰농장의 소작인으로 부렸다. 1921년 여수전기주식회사를 만들어 시내 1000등 전깃불을 점등하였고 충무동에 700평의 창고를 소유하였다. 간척지와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 여수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총독부가 매립을 하면 공사비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20%로 하여 8년간 면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고뢰농장 측에서는 매립에 적극적이었다. 소작료가 농장 전 생산량의 2/3로 일본은 고뢰농장과 같은 회사를 통해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쌀을 수탈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조선인 소작농들이 불만을 말하면 농토경작권을 빼앗았고, 간척지에 쌀 뿐 아니라 미국산 목화를 심어 일본으로 공출해 갔다. 해방 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耕者有田(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인에게 나누어주니 경작자가 1천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는 여수의 도시화 과정에서 일본의 수탈과 횡포,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일제 주도하의 경제정책은 여수를 도시화하는데 이바지 하였지만 이 아래에는 침략과 억압, 수탈이라는 굴절된 역사가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건축은 공간 안에 무엇을 건립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 공간 즉 장소를 만드는 행위이다. 건축으로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진 후에는³³⁾ 편제

33) 안용성, 『현상학과 서사공간』, 새물결플러스, 2018, 97-105면 참고할 것.

되어 있는 장소는 실재적 공간으로 탄생된다. 일제강점기 여수에 광역선 철도, 마래터널, 여수신항, 고뢰농장(다카세농장) 등이 건축됨으로써 편제 되어있던 장소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폭력, 착취, 고통의 공간으로 생성되었다. 건축되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의 귀환정 역시 몇 십 년의 시간 동안 ‘굴 껍질이 달라붙어 늘어나듯’ 늘어나고 그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이 된 것이다.

이런 공간들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지탱될 뿐 아니라 관계에 의해 생산되기도 하고 그 관계들을 생산해내기도 한다.³⁴⁾ 이런 점에서 일제 강점기 여수의 건축물들은 대상과 생산물들, 인간과 사물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자 도시화과정을 증명하고 있다.

3. 여순항쟁과 도시의 기억

1948년 10월 19일 밤 여수 신월리에 주둔 중인 국군 제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 4.3항쟁 진압명령을 거부하면서 발발한 이 사건은 ‘여수반란사건’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대체로 1995년 이후부터 ‘여순사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여순항쟁’이라고 표현한다.³⁵⁾ 동포의 학살

34)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148면.

35) 왕조봉건시대에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저항하는 행위를 지칭할 때 역사서에서는 ‘반란, 민란, 민요(民擾), 폭동’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세간에서도 지배층에 대항한다고 할 때 관습적으로 반란 혹은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동학난’이라고 불렀던 사건을 ‘지배층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피지배층의 저항’이라는 민중투쟁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면서 ‘동학농민항쟁’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이런 논리로 볼 때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일어난 사건도 여수반란사건이 아닌 ‘여순항쟁’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텍스트 상 국가폭력에 의해 시민들이 희생당한 것을 단순히 지칭할 때는 ‘여순사건’으로 표기하고, 1949년 10월 19일 사건을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잘못된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할 때는 ‘여순항쟁’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1948, 여순항쟁의 역사』, 흐름출판사, 2017, 13-14면 참고할

은 군인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조선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 출도 명령을 거부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국군 14연대 반란’, ‘국군반란’이라고 명명하며 이들이 공산주의와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봉기를 일으킨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이승만의 정적세력을 제거하고 반공 국가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당시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일반 제14연대 병사들, 지역 지식인, 소작농, 인민위원회 참여자, 노동자 등 각양 각층의 여수시민들이 항쟁에 참여하였고³⁶⁾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였지만 민중들의 저항은 전남 동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여수시 둔덕동 산골짜기와 호랑산 기슭은 참혹한 인간 사냥터였다. 이곳 처형장에서 수많은 반란군 잔당과 좌익 남로당 뿌락지들이 끌려왔다. 애매한 사람들도 많았다. 총살은 집행관의 손가락 방향에 따라 집행이 되었다. 물론 그 옆에는 반공우익청년단이 끼어있었다. 노학년이 선별작업을 맡았던 것이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잡혀와서 죽은 사실이 밝혀지자, 그때서야 진압군 사령관은 철저히 진부를 가려내어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때는 수많은 백성이 죽은 후였다. (『1948년 여수의 블루스』, 7면)

이승만 정부는 10월 22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인민대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뿐 아니라 여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하게 된다.

것.

36) 국군으로는 지창수를 비롯 14연대 좌익계 군인들이었던 오동기, 김지회, 홍순석, 이기종 등 하사관 세력, 여수여중학교 송옥 교장 등이 참여했다. 위의 책, 167-176면 참고할 것.

이후 여수, 순천을 비롯한 인근지역 벌교, 보성까지 좌익세력과 봉기군의 활동 근거지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봉기군들이 지리산에 입산하여 무장유격투쟁을 벌이다가 대부분 사살 당했다.³⁷⁾ 일부 지역민들은 여수와 순천이라는 지역 도시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여순항쟁을 ‘제14연대 반란 사건’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여전히 건의하고 있다. 이처럼 본 사건을 직접 겪었던 지역민의 트라우마와 갈등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를 볼 때 여순항쟁은 제 14연대 군인의 촉발로 시작하여 전남 동부 지역 민중의 지지와 합세에 의한 대중적 실천 행동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도 사회적·정치적 영향이 지대하며,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셋째, 권력의 잘못된 명령에 대한 저항, 이승만 권력의 기반이었던 친일과 관리와 경찰의 부패와 억압에 대한 민중의 실천적 대항³⁸⁾이라는 점에서 현대 민중사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태냐? 우리 주태 맞지야?”

“문 열었!”

“오매야, 우리 주태가 아닌갑다? 누구신디…….”

문을 열자마자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고, 놀란 나머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아버지도 집중사격에 폭, 소리 나게 고꾸라졌으며, 순간 벌써 뒷 문 쪽까지 몸을 날렸던 기태 또한 벌집이 된 채 공동화장실 문을 가슴으

37) 이를 텍스트화한 것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 회수 89회, 충당한 부대규모는 육군 4872명, 해군 2942명이다. 진압군의 피해는 전사 142명, 부상 189명, 행방불명 16명인데 반해 반군은 버려진 시체 826구, 포로 2856명으로 수목되어 있다.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심미안, 2008, 137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인의 죽음은 7600건이며 여순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은 1102건이었다. 허상수,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앞의 책, 참고할 것.

38) 위의 책, 14-15면 참고할 것.

로 밀며 뚱뚱으로 폭 처박히고 말았다.(중략)

별결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덕충동 한 칸짜리 귀환정 연립주택은 거의 절반이 소실되고 없었다. 건널목 놀이터 기타 대장네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주민들을 공터에 집합시켜 놓고 석유를 끼얹어 집을 태웠다는 소문 그대로였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몸만 빠져나오게 해 놓고 그대로 불바다를 만든 것은 집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불순분자를 색출해 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지만, 당장 먹을 것도 잘 곳도 마땅찮은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생존권의 공포가 아닐 수 없었다. (『여수의 눈물』, 159-161면)

‘기억한다’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험하지 않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르게 만들어진다. 여순항쟁을 직접적으로 겪은 이들에게는 참혹한 비극이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겪은 이들 중 부정적 기억을 가진 자들의 기억은 안보를 가장한 반공세뇌교육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이어진 독재 정권의 유지는 안보로 귀결되었으며 필연적으로 반공이라는 용어가 짝을 이루었다.³⁹⁾

1948년 그 날, 그 시대, 그 지역을 살았던 사람들은 똑같이 경험하고, 충격을 받고, 좌절하고, 절망해 버렸다. 여수 시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버린 그 사건은 이곳 사람들에게 어둡고 처참한 기억이자 접촉하고 싶지 않은 생채기였다. 이들은 산사람(빨치산)들의 연락병 노릇을 한 피투성이 열네 살 소년을 치료해주었다. 따뜻한 밥과 꽃감, 삶은 계란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고 똥참외와 참다래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운동장 앞 대열에 불려나갔으며 즉결심판을 통해 총살을 당했다.

39) 위의 책, 214면.

운동장은 완전한 공포분위기였다. 개인사정이 통하지 않은 건 물론이었고 강제행위에 대한 항의도, 잡혀온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다. 군인들은 일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어떤 대답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개머리판을 휘두르는 것으로 말을 막았고, 대답을 대신했다. 사람들은 소대별로 교실로 떠밀려 들어갔다. 날이 어두워지는 속에서 그들은 교실 맨바닥에 바짝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어졌다. (『대백산맥』 8, 116-117면)

죽은 시체 위에 가마니도 덮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사람 타는 냄새가 지글지글 진동을 했다. 아수라장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찌 이렇게 흉측한 일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린 무지막지한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토벌군은 광분했다. 상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멸절한 집 처마에 불씨를 던졌다. 한 집 두 집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온 마을이 통째 태워졌다. 삽시에 마을이 없어진 것이었다. (『여수의 눈물』, 92면)

개인의 기억은 소속된 집단의 기억으로, 개인의 기억과 개인 정체성은 집단의 기억과 집단 정체성과 밀접하다. 김귀석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소년에게 삶은 계란을 주고 약을 사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봉대를 감아 주었다는 이유로 처연한 추석 만월의 달빛아래 총살을 당하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요행이 소년 김귀석은 ‘연락병 소년’에게 지목당하지 않은 다른 아낙의 품속에 있어 목숨을 구한다.⁴⁰⁾

교장으로 정년한 김귀석은 당시 통용되던 ‘여순반란사건’을 ‘여순항쟁’으로 바꾸는 국회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다. 이는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대상’이 되던 보행자가 ‘능동적으로 마주보는 주체’, ‘역감시하는 주체’가 되는 과정이다. 지배 권력이 전면 통제하지 못하는 대안으로서

40) 앞의 책, 『여수의 눈물』, 90-92면.

이중성을 실현하는 공간 즉 ‘표류공간’을 김귀석은 찾아낸 것이다.⁴¹⁾

우익들의 경축행사, 빨치산들의 시체 효시, 좌익들의 이념전과, 부역자 색출과 공개재판이 이루어졌던 여수의 학교와 운동장, 전쟁 후 새로운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기차간에 실려 보내진 거지들의 종착역이었던 여수역, 이들의 새로운 삶에 터전이 된 판자촌 귀환정은 일상적 타자가 침묵, 추방, 이탈, 좌절하는 부재공간이다.⁴²⁾ 지난 71년 동안 여수가 감내해야 할 아픔과 고통의 건축물이자 편재된 장소이며 구체적 공간이다. 현재 KTX 역과 여수엑스포 일대는 화려한 조명쇼를 하고 고층의 호텔을 통해 공간을 감각화하고 있지만 고통스런 도시의 기억이 내재한다. 여수의 푸른 앞바다는 여전히 옛날 귀환정, 마래산 절벽 밑 웅덩이, 총살 후 불태워진 그들의 죽음과 살아 남은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4. 살아가는 공간 여수, 매 순간 깨어있기

1948년 여순항쟁 동안 여수의 무수한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었고, 곧 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은 여수시민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남해안의 작은 포구 여수는 사상과 이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었지만 항만시설이 발달하면서, 대도시로 확장되기에 불리했던 입지조건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여수 시민 다수는 일제강점기 폭압적인 권력아래 착취와 수탈을, 1948년에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국가폭력을 체험했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

41) 미셸 드 세르코는 푸코가 말한 근대권력과 판옵티콘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한다. 판옵티콘의 전체감시적 힘에 대해서도 보행자는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대상’이 되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마주보는’ 역감시하는 주체가 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특권화 된 계획도시에 ‘은유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의 창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장세용, 「미셸 드 세르코의 공간이론」, 류지석 엮음,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63면.

42) 위의 책, 73면.

고 산업화시기를 맞아 여수는 대규모 공업단지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국제박람회를 기점으로 국제해양수산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체험된 공간은 폐쇄적이고 유한한 공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들의 상호관계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경험을 통해 무한히 넓은 공간으로 확장된다. 그렇기에 체험된 공간 ‘여수’는 우리와 분리되거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gelebster Raum)이 될 수 있다.⁴³⁾ 인간은 공간과 별개로 혹은 무관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후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근원적으로 공간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내-존재’(Ins-sein)인 것이다.

「30초 남았다야, 30초!」

「동무들, 우리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합시다.」

염상진이 팔을 벌렸다.(중략) 입으로 수류탄의 핀을 뽑았다.(중략) 그 꼭대기에 머리카락을 위로 모아 묶은 목이 매달려 있었다. 그 아래로 붙은 종이에는 큼직큼직한 글씨들이 씌어 있었다. 약질 빨갱이 염상진 사살.

「그러서, 나보고 엄니, 형수씨 맡개도라 그것이어?」

염상구의 말은 얼굴만큼 싸늘했다. (중략)

「요런 개좃같은 새끼덜야, 살아서나 빨갱이제 죽어서도 빨갱이여! 당장에 못 떠내리겠어!」

염상구가 두 경찰의 어깨죽지를 동시에 치며 외친 소리였다. (『태백산맥』10, 341-344면)⁴⁴⁾

43) 불노우,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16-17면. 이기숙은 이것을 ‘살아진 공간’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필자는 문맥상 ‘살아가는 공간’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44) 장소정체성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요소는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이다. 역은 출발과 만남의 장소로 사람들이 운집한다는 점에서 광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14연대의 반란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순천, 벌교, 보성 일대를 중심으로 좌우익의 충돌이 이어진다. 여순사건 당시 여수, 순천, 벌교, 보성 등 ‘역 앞 광장’은 학교 운동장과 더불어 우익 인사들에 대한 공개인민재판, 좌익 및 부역자 색출과 즉결처분 등이 이루어지면서 군중들

염상구는 형 염상진과는 이데올로기의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이다. 노비출신의 아버지를 두었지만 학교를 다니고 하층민 지식인 계층이자 좌익에 섰던 염상진과는 달리 염상구는 하층민 우익이자 동네 건달로 친일과 반공, 강간과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이루고 부를 축척한다. 『태백산맥』은 여순사건 발발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중단까지 5년간의 시간을 그리는데 염상진과 염상구는 한 번도 마주치거나 대치하지 않는다. 텍스트 10권 마지막 염상진의 목이 효시되었을 때 처음으로 형제는 마주하게 된다. 이때 역은 삶과 죽음, 떠남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이다. 역 앞 광장에 효시된 형 염상진의 머리를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그의 모습에서 여순사건이라는 고통스런 기억은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된다. 철저한 우익 인사였지만 그 역시도 텍스트의 마지막에서는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인다. “살아서나 빨갱이제 죽어서도 빨갱이여”라는 그의 외침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 다시 자문하게 된다.

인간의 존재와 세계는 서로 공속되어 있으며 공간에 대한 물음은 결국 인간의 선험적 구성 틀에 관한 물음이다. 역, 주변의 광장, 학교 운동장 등 특정장소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충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거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 결과물이다. 여수에는 여전히 학교, 운동장, 역, 광장, 마래터널, 만성리, 덕충동이 존재한다. 그러나 덕충동 귀환정(귀환촌)은 여수 엑스포로 사라지고 호텔과 화려한 조명이 덕충동을 채우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파 만든 마래터널은 통행금지가 되어버렸고 신마래터널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공간의 로컬리티는 사회적 활동과 관계가 교차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

에게 이념을 각인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별교역과 여수역은 지리적 위치는 다를지 모르나 여순사건이 그 발발이라는 점, 별교역에 염상진의 머리를 효시함으로써 군중들에게 '좌익을 선택한 결과와 죽음이라는 공포'를 심어주었다는 점, 여순사건 당시 전라도 서남지역의 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장소정체성 등은 유사하다. (필자 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물음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공간을 무관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공간을 구성하고, 건축과 사건을 통해 편재된 장소를 공간으로 구성하는 ‘인간과 공간에 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존재일반으로 나아갔던 후설이나, 인간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존재일반을 규명하고자 했던 하이데거까지 이들은 모두 인간의 삶과 공간성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국가나 사회가 우리를 아무리 학대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빙자해서 안일하게 타락해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Y시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민족 이땅을 등지고는 살 수 없어요. 모두가 제각기의 이득만을 노리고 날뿔망정 나 혼자만이라도 옳은 길을 찾아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민족, 이 땅에게 더 크게 무엇인가를 바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민족적 양심이 가리키는 길만을 꾸준히 걷고자 할 따름이지요. (중략)

“살아야 한다. 오로지 내힘으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강한 삶에의 의욕이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게 그녀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 뒤에 오는 것』, 389-390면)

장소란 ‘실존적 공간’, ‘지각된 공간’, ‘체험된 공간’을 말한다. 텍스트의 인물들에게 여수는 국가폭력이라는 비극을 경험한 공간이자 이데올로기 갈등을 가족애, 민족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한 공간이고 내가 여기 지금 이곳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실존적 공간이었다.

참된 거주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공간 내의 일정 장소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단단히 토대를 다지고 안식을 주는 개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내부 공간에 웅크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위협적이고도 위협한 외부 공간도 온전히 삶 속에 포함하고, 인간

의 삶이 실현되는 유일한 바탕인 내부와 외부 공간의 긴장을 이겨내야 한다. 셋째, 위협적인 외부 공간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자기 집의 굳건함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극복하고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큰 공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이 공간은 위협한 성질을 잃고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⁴⁵⁾ 여수에서의 ‘그 사건’으로 조부모와 부모를 잃고 희생자 가족으로 자라온 김기석(『여수의 눈물』)은 ‘역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자 타자였던 그는 사건의 주체자가 되어 실체와 진실을 당당히 밝히고 여순사건이 아닌 ‘여순항쟁’으로 국회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화가이자 미대교수인 서병수는 친구 김기석이 여순항쟁의 기록을 그림으로 남기자는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치솟는 불쾌감을 미처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러던 그가 황말암의 ‘토악질나는 그림’을 보고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비인륜적이고 흉폭하고 잔혹하고 추악한 내용이어서 거부감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는 대하고 싶지 않다는 증표로 토악질까지 했는데, 왜 다시 눈길이 그쪽으로만 가는 것일까. (중략)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 이수라장의 도록을 직접 목격한 산증인인 셈이군요?”

“산증인이 아니라 나 또한 무관하지 않은 미친 가해자의 한 사람이었소 (중략) 잘려져 땅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머리를 주워 아무렇지도 않게 자루에 따로 담았으니까!” (중략)

“왜 어제 있었던 사건처럼 나를 압박지르는지 모르겠소, 어찌다가 새벽에 눈을 뜨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몸통없는 피투성이 머리들이 허공중에 날아다니기도 하고…….(중략) 나 또한 그동안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르오. (중략) 그림을 그려라! 그 처참했던 광경을 그림으로 되살려 만

45) 앞의 책, 『인간과 공간』, 398면.

친하에 알려라.”(『여수의 눈물』, 275-278면)

가해자였던 황말암의 속죄의식과 태도는 서병수를 현실에서 깨어나게 한다. 이에 더해 독립운동가로 존경했던 아버지 서창만이 사실은 군자금을 착복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의혈단 배신자 중 한 명이었다는 것, 착복과 횡령을 은폐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5개월 씩 일제 감옥살이를 자원해 하지않았다는 것은 서병수에게 충격이었다. 그것은 비겁하고 추악한 행동이었다. 용서가 안되는 악랄한 범죄이며 민족 전체에 대한 배신이었다. 여순사건이 일어나던 때 어머니는 이런 돈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쳤고 이로 인해 서병수는 경제적 부와 사회적 이익을 얻게되었다. 독립군이었던가 빨치산 박상돈에게 암살당했다고 믿었던 아버지 서창만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서병수(『여수의 눈물』)는 서창만 독립유공자 동상을 없애고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막대한 재산을 원래 자리에 환원시키려고 생각한다. 이처럼 황말암과 서병수는 역사와 시민에게 가지는 부채의식으로 인해 점차 깨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서경(『절망 뒤에 오는 것』)은 여순사건 당시 학교에서 자신을 겁탈하려는 대령에게 맞서고 빨갱이로 지목된 동료 교사를 몰래 배에 태워 구출하기 위해 담대한 모습도 보인다. 좋지 않은 인연으로 시작되었지만 무뚝뚝하면서도 자신을 도와주는 대령에게 고마움을 점차 느끼고, 결국 대령의 아내가 된다.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동안 동생과 자신을 도와준 이 중위의 죽음은 서경을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텍스트의 인물들이 여수를 참된 거주지이자 실존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안주하기 위해 과거의 아픔을 직시한다. 자신이 놓여있는 직접적 상황의 긴장 안에서 지각을 통해 공간의 경험을 획득하고 참된 거주 안에서 매 순간 깨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르포소설이라 할 수 있는 『여수역』은 작중화자인 윤훈주를 통해 매 순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독자에게 잘 보여준다. 초등학교 동창 고형선의 부친상으로 빈소에 가기위해 여수로 향하는 훈주는 KTX 안에서

‘철길, 마래터널, 덕춘동 귀환정, 신월동, 국동’ 등 자신이 어렸을 때 놀던 여수 곳곳을 떠올린다. 화자이자 관찰자인 훈주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택시 안과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추억이 깃든 그곳이, 양민들이 학살된 비극적 장소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이것이 국가폭력이었음을 인지한 것이다. 훈주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여수의 비극은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여수시민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도적 주입으로 인해 반란지역민으로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화자는 훈주의 깨달음을 통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인간이 장소를 통해서 공간과 맺는 본질적 관계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속성인 거주에 있다.⁴⁶⁾ 비탄한 운명을 만들어낸 여수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수에서 사는 홍양숙은 심장까지 깊이 생체기가 파였지만 참된 거주를 통해 실제적 공간으로서 여수를 인지한다.

“훈주야, 여기까지 와 줘서 고맙다. 여수에 자주 내려와라, 여수바다가 얼마나 아름답냐.” 홍양숙은 아름다운 바다와 참담했던 과거 생체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양가감정표정으로 비쳐졌다. (중략) 홍양숙은 어제가 비극적이었다고 해서 오늘이 비참해서는 안 되고 내일이 어두워서는 더욱 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다만 어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중략)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과거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왼편에 썼든 오른편에 썼든 어제 사실을 바탕으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진실이어야 했다. (중략) 화해는 진실과 대면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조화되지 않는 홍양숙과 여수의 표정이, 여수와 홍양숙이 비로소 하나로 조화롭게 일치하게 되는 것이었다. (『여수역』, 243-247면)

『여수의 사랑』에서는 산업화시대 이후 여수를 그린다. ‘나’는 지독한 결

46)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73면.

벽증을 앓고 있는 인물이다. 스물다섯 살이던 어머니는 내 나이 다섯 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이년 후 ‘나’와 동생을 죽이려고 여수 앞바다에 빠뜨리고 자신도 투신한다. 가까스로 ‘나’만 구조되지만 이후 나에게 여수는 더럽고 악취가 나는 두려운 곳이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돌아갈 집과 여수에 대한 소속감마저 상실하고, 무관심을 통해 사람들과 여수로부터 스스로 소외를 한다.

자흔은 두 살 배기일 때 여수발 서울행 통일호 열차에서 발견되어 보호기관과 고아원을 거쳐 입양되었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혼자가 된 여인이다. 모든 도시가 곧 떠나야 할 낯선 곳이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던 그녀는 여수 앞바다 해안 소재마을에서 처음으로 고향을 느낀다.

“마치 내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품속에 돌아와 있는 것 같았어요. (중략) ……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수의 사랑』, 56면)

‘나’는 그런 자흔에게서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기침소리를 토해냈던 조그만 체구의 내 어머니’를 떠올린다.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을 느끼게 했던 그 감각은 여수의 냄새가 자흔에게서 풍겨나오고 있다고 착각하게 한다. 애써 잊어버리고 있던 아버지와 여수에 대한 기억, 죽음의 공포는 비릿한 바닷내음으로 풍겨왔지만 자흔이 떠나버린 후에야 그 냄새는 그녀의 다정함이 형상화된 것이었고, 바로 어머니의 그것임을 느낀다.

아버지, 아……아버지. (중략)

스물다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등진 어린 어머니의 아련한 품속처럼, 수천수만의 물고기 비늘들이 떠올라 빛나는 것 같던 봄날의 여수 앞바다

처럼 자흔의 가슴은 다사롭고 포근하였다. (중략) 더러운 손이었다. 손을 씻고 싶었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여태껏 삼켜온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싶었다. (중략) 술에 젖은 아버지의 가슴을 밀어내기 위해 나는 안간힘을 썼다. (중략) 미선이를 집어던진 아버지는 이번에는 반항하는 나를 목에 감아 안은 것이다. 깊푸른 물살 속으로 머리부터 곤두박질쳤다. 눈과 입과 코로 정신없이 들이닥치는 잔물, 잔물. (중략) 죽을라면 혼자 죽을 것이 어쩐다고 죄 없는 어린것들을…… (중략) ……제 어매가 살아서 이 징한 꼴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잉. (『여수의 사랑』, 53-59면)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여수는 국가산업단지로서 개발된다. 여천공단이 들어서고 발전해가는 여수에서 아버지는 실패한 인물이다. 작가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화자인 ‘나’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다. ‘나’에게 여수는 죽음의 공간이자 장소상실의 공간이지만 ‘나’는 자흔에게서 어머니, 여수의 생명력을 느끼고 그녀를 찾기 위해, 그녀가 갔을만한 곳, 여수로 다시 떠나게 된다.

여수, 마침내 그곳의 승강장에 내려서자 바람은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어깨를 혹독하게 후려쳤다. 무겁게 가라앉은 잿빛 하늘은 눈부신 얼음 조각 같은 빗발들을 내 악문 입술을 향해 내리꽂았다. 킥킥, 한옥식 역사의 검푸른 기와지붕 위로 자흔의 아련한 웃음소리가 폭우와 함께 넘쳐흐르고 있었다. (『여수의 사랑』, 64면)

여수에 대한 장소의 기억이 ‘죽음’이라는 이미지로 남아있는 나에게 여수는 장소상실의 공간이다. 그러나 여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자흔은 오히려 여수 동쪽 앞바다 ‘소제 마을’에서 장소애를 갖는다. 시도 때도 없이 불결함, 더러움에 대한 강박으로 토하고 청소를 반복하는 ‘나’는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존재였다. 반면 자흔은 몸 곳곳에 맺혔던 피멍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느덧 풀려가듯이, 옹골차게 맺혀가고 있던 자신의 마음 속

명울조차도 여수로 향하면서 풀어버린다.

‘여수’에 정착하여 개인 공간을 만들고, 두려움을 깨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온 자흔처럼 ‘나’ 역시 죽음의 공간 여수를 삶의 공간, 생명력의 공간으로 전복하기 위해 여수로 향한다. 이는 어쩌면 여순사건 이후 죽음의 공간이었던 여수가 다시 생명력을 얻는 과정, 실존적 내부성을 얻는 과정을 은유한 것일지도 모른다.

장소 정체성은 도시나 경관의 물리적 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 눈, 마음, 의도 속에서도 존재한다. 모든 개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특정 속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런 정체성은 상호 주관적으로 결합되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확실히 우리가 느끼는 장소 정체성의 고유성, 강렬함, 순수성을 좌우하는 것은 이러한 성격과 대상이 우리의 장소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다.⁴⁷⁾

진정하면서도 의식적인 장소감은 인간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반영하는 장소를 창출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비롯된다. 여순사건 때 시신을 던졌던 마래산 굴 너머 웅덩이도, 귀환정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 터를 알 수 있는 자그마한 비석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의식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진정한 여수의 장소감은 사라진 채 오히려 여수 밤바다의 네온사인파 호텔의 화려한 불빛, ‘여수밤바다’ 노랫소리만 흘러나온다. 현대 경관의 맥락 속에 심오한 상징이나 의미가 아닌 우리 자신과는 단절된 합리성과 부조리, 무장소성만 드러난다. 강요되고 표준화된 가치로 이루어진 대중문화 안에서 근 100년의 시간동안 변화한 여수의 로컬리티는 규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물리적, 사회적, 미학적, 정신적 문화를 ‘인간과 공간, 장소’라는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정체성을 만들어어나가고 있다.

장소는 생생하고 역동적이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사회관계를 통해

47) 위의 책, 109면.

장소를 알게 된다. 창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와 경험을 표현하고 기록한 곳이 장소이다. 인간 존재, 현존재로서 자기 실존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인식할 때,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화 안에서도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장소에 속했다고 느낄 수 있다. 귀환정, 여수역, 여수운동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희생당한 시민들, 산업화로 인해 터를 떠나야만 했던 지역민들의 상처, 이들의 죽음과 남겨진 이들의 트라우마는 여수 지역민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극이자 당 시대의 비극일 것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수에 대한 진정하고도 무의식적인 장소감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여수’의 로컬리티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여수의 발전과정 안에서 여수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상되고 공간의 로컬리티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태백산맥』, 『여수역』, 『절망 뒤에 오는 것』, 『여수의 눈물』, 「하산장(下山場)」, 「1948년 여수의 블루스」, 『여수의 사랑』 등을 텍스트로 하여 여수라는 공간에 관한 생물학적 사실들, 공간과 장소의 관계, 이 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경험의 방식들을 살펴보았다. 실제 여수 시민들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 텍스트 인물들의 경험이나 의식 속에서 ‘여수’가 자신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 경관 속에서 표현되는 장소와 무장소(장소상실)의 독특하고 본질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 주도의 도시화정책에 의해 개발된 항구도시 여수는 1949년 여순사건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거쳐 1970년대 산업화 이후 국가산업단지로, 최근에는 국제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관광산업단지로 발전하였다. 진정하면서도 의식적인 장소감은 인간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반영하는 장소를 창출하려는 시도

에서부터 비롯된다. 일제강점기 징용을 갔다 귀국한 사람들, 여순사건과 한국 전쟁 후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이 모였던 귀환정, 마래산 절벽 아래 시체옹덩이, 전쟁 후 새로운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기차간에 실려 보내진 거지들의 종착역이었던 여수역, 국동 구봉산자락에 자연스레 형성된 무연고 공동묘지에는 국가방위산업체 공장이 들어서고, 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전부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그 터를 알 수 있는 자그마한 비석. 대규모 공장단지, KTX역, 호텔과 공원이 들어서있을 뿐이다. 의식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진정한 여수의 장소감은 사라진 채 오히려 여수 밤바다의 네온사인과 호텔의 화려한 불빛, '여수밤바다' 노랫소리만 흘러 나온다. 현대 경관의 맥락 속에 심오한 상징이나 의미가 아닌 우리 자신과는 단절된 합리성과 부조리, 무장소성만 드러난다. 강요되고 표준화된 가치로 이루어진 대중문화 안에서 근 100년의 시간동안 변화한 여수의 로컬리티는 규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물리적, 사회적, 미학적, 정신적 문화를 '인간과 공간, 장소'라는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수에 대한 진정하고도 무의식적인 장소감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여수'의 로컬리티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강종홍, 「하산장(下山場)」, 남강문학 12호, 남강문학협회, 2020.
 김용필, 「1948년 여수의 블루스」, 여수인터넷뉴스, 2008.
 백시중, 『여수의 눈물』, 문예바다, 2020.
 양영제, 『여수역』, 바른북스, 2017.
 여수시, (사)한국문인협회 여수지부,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작품집』, 도서출판 소리기
 획, 2005-2018.
 전병순, 『절망 뒤에 오는 것』, 국제문화사, 1963.
 조정래, 『태백산맥』 1-10권, 한길사, 1983-1989.
 한강,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 2012.

2. 국내 단행본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선인, 2009.
 류지석,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안용성, 『현상학과 서사공간』, 새물결플러스, 2018.
 여수항일운동사 편찬위원회, 『여수항일운동사』, 전라남도 여수시, 2006.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심미안, 2008.
 전영의, 『고통의 공감과 연대』, 한국문화사, 2016.
 전영의, 『한국과 중국의 문학적 공간과 의미』, 역락, 2019.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1948, 여순항쟁의 역사』, 흐름출판사, 2017.
 주철희,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하다-여수에 남겨진 일제 군사기지 탐사보고』, 흐름, 2015.
 한규무, 「여수의 근대화와 국제해양도시로의 발전」,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
 소 편,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심미안, 2008.

3. 국외 단행본

-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볼노우,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제프 말파스 지음, 김지혜 옮김,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4. 논문

- 권은미, 『『태백산맥』 연구』 울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무용, 「제헌국회의 계엄령 헌법화와 계엄법안의 차별화」, 한국사학보 49집, 2012, 335-374면.
- 김아람, 「여순사건 이후 지역의 피해와 재정착의 정치성」, 한국근현대사 연구 84집, 2018, 287-320면.
- 김은진, 「여수 지역 근대문학의 형성 배경과 전개 양상」, 남도문화연구 10집, 2004, 101-134면.
- 박경목,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女(여)수감자 현황과 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68집, 2014, 43-103면.
-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사회연구』, vol 1-3, 한국학술정보 출판사, 2000-2013.
- 우승환, 「일제강점기 여수의 도시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집, 2011, 103-121면.
- 이영민, 「인천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특성과 다문화 로컬리티에 관한 예비적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17집, 2017, 197-238면.
- 이윤선, 「여수 영당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민속경관 전략」, 남도민속연구 14집, 2007, 281-320면.
- 임성운, 「우리 문학사의 지역문학 인식」, 남도문화연구 6집, 1997, 259-306면.
- 전영의,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문학생산론-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7집, 2012, 251-273면.
- 전영의, 「조정래 『태백산맥』의 서사담론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2.
- 전영의,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나타난 문학의 정치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집, 2012, 433-452면.
- 전영의, 「『태백산맥』의 탈식민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76집, 2011, 317-350면.
- 전홍남, 김동윤, 「여순사건과 4.3사건 관련 소설의 담론화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0집, 2003, 301-339면.
- 정호기, 「전쟁 기억 매개체와 담론의 변화」, 사회와 역사 68집, 2005, 68-103면.
- 주철희, 「여순사건과 지역의 기억」, 역사학연구 56집, 2014, 213-246면.
- 최미진, 「사회적 멜로드라마의 역사성과 대중성 : 전병순의 『絶望 뒤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1집, 2004, 319-343면.
- 허상수,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지역사회연구』 vol.2, 한국학술정보, 2012.

<http://www.kosis.kr>

<Abstract>

Marin City Yeosu's Literary representation and Locality of Space

Chon, YoungEui

The article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how Yeosu is represented literary and has the locality of space within Yeosu's development proces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day. The biological facts about the space called Yeosu,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place, and the various ways of experience made in it were examine, using these as texts *Taeback Mountain*, *Yeosu station*, *What comes after despair*, *Yeosu's tears*, *Loading dock*, *Yeosu's Blues 1948*, *Yeosu's love*. I was able to find unique and essential elements in Yeosu's various ways, landscape, place and placelessness in the historical experienced by the citizens of Yeosu, experiences and consciousness of characters.

Yeosu, a port city developed under the Japanese-led urbanization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eveloped into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fter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fter the historical tragedy of the 'Yeosun incident' 1949. It has developed into a tourism industrial complex by holding an international expo recently. A real conscious sense of place stems from an attempt to create a place that reflects a clear concept of humanity. The return tents disappeared where they gathered who returned from conscrip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eople whose homes disappeared after the 'Yeosun

incident' and 'the Korean War'. Also corpse pool under the cliffs of Mt. Marae, national road Gubongsan cemetery disappeared. Instead, factories of national industry and parks were built and an International Expo was held and there is only a small tombstone left. The conscious and true sense of place of Yeosu has disappeared. Instead, only the neon signs of the Yeosu night sea, the colorful lights of the hotel, and the song of "Yeosu Night Sea" come out. There is no profound symbol or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 modern landscape, Symbols and meanings are disconnected from us. and we can only see placelessness and absurdity. We cannot define the locality of Yeosu that has changed over a period of 100 years within the forced and standardized popular culture. Yeosu's locality is reflecting and creating its identity as a whole in relationship of physical, social, aesthetic, and spiritual culture. When we feel a genuine and unconscious sense of place for Yeosu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locality of 'Yeosu'.

Key words: Yeosun incident, place, space, locality, Yeosu, placelessness, *Taeback Mountain*, *Yeosu station*, *What comes after despair*, *Yeosu's tears*, *Loading dock*, *Yeosu's Blues 1948*, *Yeosu's love*

투 고 일 : 2021년 5월 12일

심 사 일 :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21년 6월 22일